재정경제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6. 28.(일) 12:00 배포 2026. 6. 28.(일) 10:00

허장 재경부 제2차관, 「중동 인프라 협력 TF 겸 해외수주협의회」 개최

- 국토·산업·외교·과기·기후·해수부 등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참여, 중동 국가별 주요 프로젝트 점검 및 지원방안 논의

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6월 26일(금) 정부서울청사에서 「중동 인프라 협력 TF 겸 해외수주협의회」를 개최하였다.

이번 회의는 지난 대외경제장관회의('26.6.10.)에서 의결된 '국가별·분야별 인프라 고도화 협력방안'을 추진하기 위한 「중동 인프라 협력 TF」의 첫 번째 회의로써 중동지역 인프라 사업들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 동 TF는 정부, 공공기관, 정책금융기관, 관련 단체 및 협회로 구성된 범정부 조직으로 중동전쟁 이후 단순 피해복구를 넘어 경제전반의 체질 개선을 함께하는 파트너로서 인프라 등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성되었다.

<중동 인프라 협력 TF 겸 해외수주협의회 개요>

- **일시·장소** : '26.6.26(금) 15:00~16:00, 정부서울청사
- **참석자**: 관계부처 재경부(2차관 주재), 국토부, 산업부, 외교부, 과기부, 기후부, 해수부 및 전략경제협력지원단
  관계기관 수출입은행, 산업은행, 무역보험공사, KIND, 해외건설협회 및 플랜트산업협회, KOTRA

이번 회의에서 참석 기관들은 현재 수주를 추진 중인 중동 국가별 주요 사업을 소개 및 수주가능성, 지원 필요성 등을 공유하고 국가·사업의 특성에 따른 G2G 협력, 금융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.

허 차관은 “앞으로 이란 핵사찰, 美 의회 제출 이란 재건 지원금 동향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으나, 상황이 안정되면 중동 주요국들은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 경제전반의 체질 개선을 추진할 전망”이라면서, “그동안 다양한 협력을 통해 두터운 신뢰를 쌓아온 우리에게는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경제협력 기회이므로 정부-기업-공공기관이 팀코리아로서 원팀이 되어 중동 주요국들의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 협력방안을 마련하여 선제적·전략적으로 대응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정부는 앞으로도 현지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, 우리 기업의 수주 활동 및 애로사항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	책임자	과 장	강병중 (044-215-7630)
		담당자	서기관	김연대 (ydkim2012@korea.kr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대체불가 대한민국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